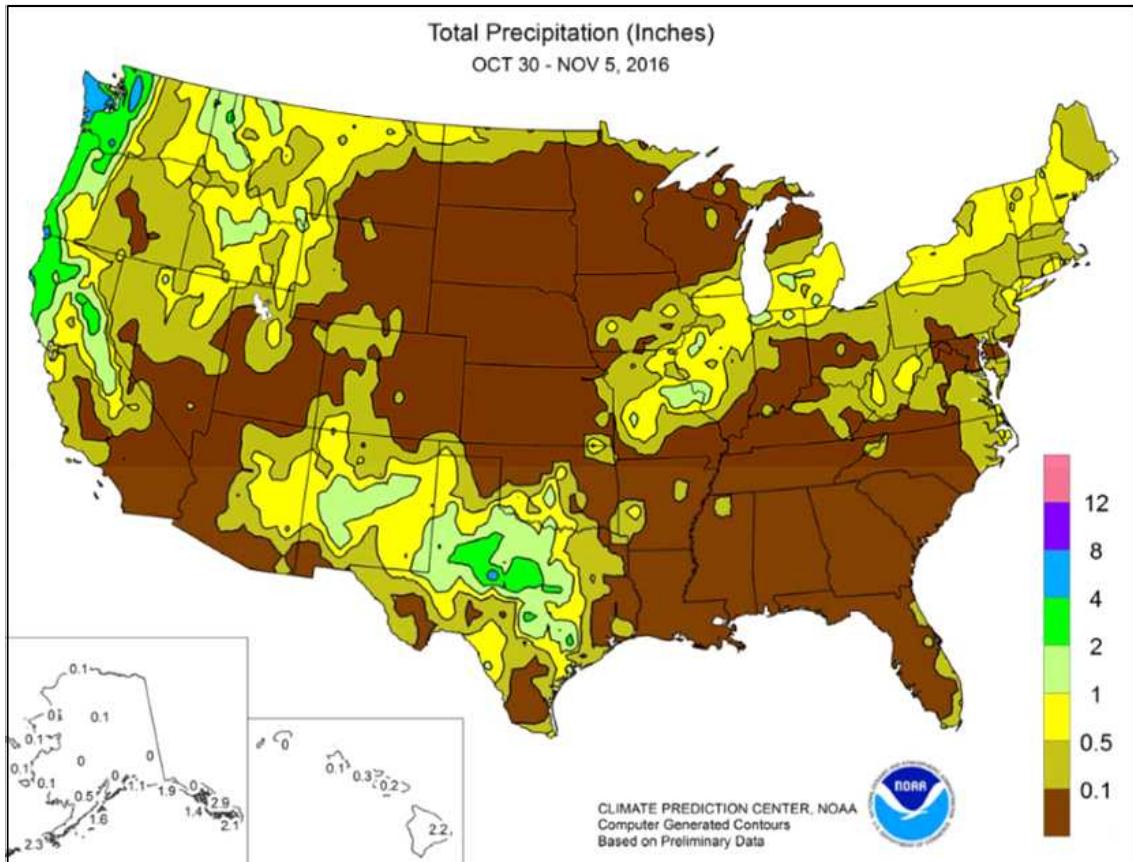


11월 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45)

□ 미국 기후 현황(10/30~11/05)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미 대륙 전역에 이어졌다. 남동부 내륙지역에서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이 비가 내릴 때까지 연기되었다. 중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고, 플로리다 남부,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및 뉴잉글랜드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다소 낮거나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 일대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기도 했다.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일부 지역에서도 비가 조금 내렸다. 중부와 남부 평원 일대에도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다.

일리노이의 Rockford 에서는 1973년 이후 처음으로 10월 한 달 동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텍사스에서는 10월 한 달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90°F 이상 올라간 일수가 6일이었다(2007년의 4일이 그전까지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북서부 일대에서는 지난 9월처럼 10월 한 달 동안에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10/31~11/4)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 날이 이어졌다. 중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이 9°F 이상 높았다. 전국적으로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다소 적었지만, 몬태나와 뉴 멕시코, 텍사스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8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 옥수수

11월 6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86%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5%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앞서는 수치이다.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18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지난 한 주간 옥수수 수확률이 10%p 이상 증가했다. 캔사스와 캔터키,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등에서는 수확작업이 종료될 앞두고 있다.

■ 대두

지난 11월 6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93%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2%p 앞서는 수치이다. 미시간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11%p 이상 증가했고, 이 지역의 수확률은 77%를 기록했다. 하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11%p 낮은 수치이다.

■ 겨울밀

11월 6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발아가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79%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및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약간 앞서는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p 높은 수치이다.

■ 면화

11월 6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56%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4%p 낮은 수치이다. 조지아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수확률이 7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16%p 앞서는 수치이다. 텍사스의 고원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수확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텍사스 저지대 일대에서도 수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세계 기후 현황(10/30~11/05)

- 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프랑스 전역에서도 2~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프랑스 서부와 북동부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60일간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60%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독일 중부에서부터 동부 및 남부 유럽 일대에서도 2~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탈리아에서도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4°C 정도 높았고, 폴란드와 발틱 연안 국가들에서는 올 시즌 처음으로 5~20cm 내외의 눈이 내렸다. 잉글랜드 남동부와 다뉴브 강 일대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농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 구소련(서부): 중부와 북부 일대에서는 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첫 눈이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낮은 날이 이어지고 있고, 겨울밀은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남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우크라이나 중부와 남부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중부에서는 눈이 내렸고, 벨라루스와 러시아 중부에서도 지난 주말 5~20cm 내외의 눈이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에서는 선선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10~15°C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양쯔강 일대에서도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Hebei, Shandong 일대에서는 밤 동안에는 영하로 내려갔다.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기는 하지만 농작물 성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 서부와 남동부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밀, 보리, 캐놀라 등의 생육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여름작물의 생산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겨울일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남동부에서는 기온이 1°C 정도 낮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가 내렸다. La Pampa, Cordoba 및 Buenos Aires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Entre Rio, Formosa 동부에서는 25~50mm 내외의 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Chaco, Formosa 서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그밖에 Santiago del Estero, Salta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남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까지 오르고 있다. 북부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1월 3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62%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p 높은 수치이다. 옥수수의 파종률은 31%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4%에 비해 3%p 낮은 수치다.

■ 브라질: 남부와 중부의 대두,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Rio de Grande do Sul 북부에서부터 Parana 서부, Mato Grosso do Sul 중부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올랐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81%로 나타났고,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률은 각각 96%,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11월 3일 기준 대두 파종률은 9%, 밀 수확률은 2%를 기록했다. 중부의 Mato Grosso, Goias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올랐다. 브라질에서 발행되는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4일 기준 대두 파종률은 80%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p 앞서는 수치이다.